

일제 강점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경제윤리로서의 자조(自助)

이병성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I. 들어가는 말

II. 선교사들의 경제윤리와 자본주의적 삶

1. 유교적 사회경제질서에 대한 선교사들의 비판
2. 선교사들의 경제윤리
3. 선교사들의 자본주의적 삶

III. 선교사들의 자조윤리

IV. 일제의 자조윤리로서의 “자력갱생”과 선교사들

1. 일제의 자조윤리로서의 “자력갱생”
2. 선교사와 일제 식민주의자들의 자조윤리

V. 나가는 말: 자본주의 근대성과 기독교 근대성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4.03>

• ABSTRACT •

Self-Help as Economic Ethics of Protestant Missionaries in Colonial Korea

Lee, Byongsung (Professional Researcher, Institute of Christianity and Korean Culture,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testant missionaries' view on capitalist valu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analyzes their economic ethics that they taught and emphasized to Korean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capitalist system in Korea slowly but incrementally expanded though the colonial economy of Korea was extremely subordinated to the Japanese Empire. Protestant missionaries believed that it was their "duty" and "responsibility" as Christian missionaries to help and train Koreans to adapt to the modern economic system. Self-help was central to the economic ethics of Protestant missionaries. Missionaries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preading modern economic norms and values and in creating capitalistic human beings by nurturing economic ethics, whose core element was self-help ethics. The self-help ethics of missionarie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colonial self-help ethics expressed as "self-reliance," a colonial policy carried out by the colonial government in the 1930s. Protestant missionari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capitalist modernity in Korea by spreading self-help ethics. This is a feature of Christian modernity in colonial Korea.

Key words: Missionaries, Self-Help, Economic Ethics, Capitalism, Christianity, Modernity

I. 들어가는 말

일제시대에 조선의 식민 경제는 일제에 완전히 종속된 경제 이었다. 그러나 비록 속도가 느리긴 하였지만, 자본주의체제가 날로 확대되고,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이 심화되는 시대였다. 식민지 시대 전반을 걸쳐서, 식민 조선은 경제적으로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지만, 일정부분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적지 않은 조선인들이 날로 확대되어 가는 산업화의 과정에 참여하였다.¹⁾

자본주의 체제의 확대는 대부분의 삶의 영역이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근대적 삶이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선교사들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선교사 루카스 A. E. Lucas는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선교사와 조선인 모두 자본주의가 중심이 되는 “경제의 시대”에 살

1) 일제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논쟁은 일제에 의한 경제정책이 조선인에게 수탈이었는가 아니면 근대적 발전이었는가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수탈론은 기존의 민족주의적 관점의 방법론이고, 근대적 발전은 식민지근대화론의 관점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수탈이나 발전이라는 이항대립적 관점을 뛰어넘어서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근대에서 선교사와 개신교의 역할은 어떠 하였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중심으로 하는 논쟁에 대하여는 다음 논문을 보라. 조석근, “민족경제론의 식민지시대 역사인식 재조명,” 동향과 전망 (2008): 113-145; 이도흠, “근대성 논의에서 패러다임과 방법론의 혁신 문제,” 국어국문학 153 (2009): 253-285; 이윤미, “식민지근대화론 논의의 성격과 그에 대한 교육적 이해 및 비판,” 한국교육사학 25.1 (2003): 129-153; 정연태, “주제서평-식민지근대화론의 새로운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비평 (2002): 385-398. 식민지근대화론 입장에서 식민지 경제를 연구한 논의는 다음 문헌을 참고하라. 안병직 편, 『한국경제성장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김낙년 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Carter J. Eckert, *Offspring of Empire: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식민지 시대 경제의 개괄적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강만길,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김인호,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2000).

고 있다고 표현 하였다.²⁾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서, 선교사들은 한국의 경제를 분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³⁾ 농촌경제등을 포함한 경제생활 전반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선교 기관과 연계된 조선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선교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다.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은 기독교 선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나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대적 경제체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그들의 경제 생활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태도를 클라크 F. O. Clark 선교사는 경제적 영역에서 선교사들의 “책임감”이라고 표현했다.⁴⁾ 그는 선교기관을 통하여 기독교 복음에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익이 나는 노동의 형태”를 훈련 받아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교사들은 조선인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여러 경제 관련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⁵⁾ 선교사들의 이러한 경제생활에 대한 관심은 한국인들에게 근대적 경제적 가치와 규범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에 경제적 근대성의 확산에 큰 영향을 주었다.

2) A. E. Lucas, “The Gospel and Industrial Arts”, *The Korea Mission Field*, 14-1 (1918), 20.

3) 선교사들의 식민지 시기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으로는 다음 글을 보라. Edmund Brunner, “Rural Korea: A Preliminary Survey of Economic, Social, and Religious Conditions,” *The Jerusalem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March 24-April 8, 1928: Volume 6. The Christian Mission in Relation to Rural Problems*, ed.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London: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1928), 84-172; Robert Grierson, “Korean Industrial Characteristics,” *The Korea Mission Field*, 14-8 (1918), 5-7; T. J. Carter, “Industrial Korea,”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1921, 413-6.

4) F. O. Clark, “First Impressions of Korea’s Economic Conditions,” *The Korea Mission Field*, 25-8 (1929), 166.

5) 같은 글, 164-5.

이 논문은 일제 시대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진 자본주의 가치관이 무엇 인지를 검토하면서, 그들이 한국인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강조한 자본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경제윤리, 직업윤리를 분석한다. II장에서는 선교사들이 강조한 경제윤리가 무엇인 분석한다. 자조윤리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경제윤리에 핵심적이다. III장에서는 이 자조윤리의 의미를 논의한다. 선교사들의 자조윤리는 일제가 1930년대에 강조한 “자력갱생”이라고 표현된 식민지 자조윤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IV장에서는 이러한 연결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V장에서는 자조윤리가 자본주의 근대성과 기독교 근대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개신교 선교사를 통하여 영향 받은 자본주의 가치가 일제시대와 그 이후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근대성과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검토한다.

II. 선교사들의 경제윤리와 자본주의적 삶

1. 유교적 사회경제질서에 대한 선교사들의 비판

근대 이전 조선 사회는 경제적인면에서 아직 서구적 양식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그 규범이 도입되지 않은 사회였다. 이 사회는 농업이 주요 경제생활의 기반이었고, 유교적 정치경제 규범에 의해 경제생활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었다. 특히 사회 계급은 사농공상 士農工商의 위계로 구조화 되어 있었다. 양반 계층이 최상위 사회적 계급을 형성하고 있었고, 농부, 장인, 상인이 경제주체로 활동하였다. 농부들은 대다수의 인구를 차지하면서 경제생활의 중추역할을 담당 하였기 때문에, 농업이 정치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성리학적 위계적 신분 질서에 근거한 조선의 경제윤리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이었다. 그들은 유교적 가치와 질서가 근대적

산업의 발전을 극도로 저해하고 있다고 보았다.⁶⁾ 그들은 특히 사농공상의 위계적 신분 질서가 근대적 경제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고 보았다. 사농공상에 대한 비판적은 평가는 게일 J. S. Gale 선교사의 조선에 대한 묘사 속에 잘 표현되고 있다.⁷⁾ 게일은 장인을 자본주의 발전에 중요한 산업 노동자로 보면서,⁸⁾ 제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장인을 멸시하는 성리학적 유교 질서는 경제적 후진성의 주범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위계 질서는 모든 제조업을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상업의 발전도 가로 막았다고 그는 보았다.⁹⁾ 게일은 조선에서 상인들은 사농공상의 맨 아래 계층을 형성하면서 천민보다 “약간 나은” 계층일 뿐이라고 묘사한다. 동시대 서구의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유한 상인이나 부르주아 계급은 사회 변화와 발전의 중추가 되어 그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게일

-
- 6) 유교적 문화와 가치가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입장은 베버에 의해 강하게 제기되었다. 다음 문헌을 보라. Max Weber, *The Religion of China: Confucianism and Taoism*, trans. Hans H. Gerth (New York: Free Press, 1951).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1960년대이후 재평가된다. 오히려 유교가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의 문화적 가치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평가가 부상한다. 유교 자본주의론에 대하여는 다음을 보라. Wei-ming Tu, ed.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Moral Education and Economic Culture in Japan and the Four Mini-Dragon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Seok-Choon Lew, Woo-Young Choi, and Hye Suk Wang, “Confucian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in Korea: The Significance of Filial Piety,”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1, no. 2 (2011): 171-96; Chan Sup Chang, “The Confucian Capitalism: Impact of Culture and the Management System on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15, no. 2 (1998): 53.
- 7) J. S. Gale,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Chapter IV,” *The Korea Mission Field*, 20-10 (1924), 202.
- 8) 선교사 Frank M. Brockman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글을 쓰면서, 장인이나 기계공 없이 “산업의 진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Frank M. Brockman, “Some of the Problems of Industrial Education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6-7 (1910), 175.
- 9) 클라크 F. O. Clark 선교사는 식민지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분야가 바로 제조업과 상거래라고 주장하였다. Clark, “First Impressions of Korea’s Economic Conditions,” 163.

이 보는 조선의 돈 많은 상인들은 전혀 그러한 힘과 위치를 잡하지 못하였다. 개일은 조선의 상인들은 비록 재물이 많을 지라도 양반들을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천대 받고 있다고 묘사하였다. 다시 말해서 개일은 조선의 사농공상의 신분 질서를 자본주의적 발전 그리고 근대적 산업의 형성에 근본적 저해요인 이라고 보면서 그 상층부를 차지하는 성리학적 유학을 숭상하는 양반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판하였다.¹⁰⁾

경제적인 관점에서 유교에 대한 비판은 선교사 아담스 Edwards Adams에게 서도 반복된다. 그는 조선사회에서 유교는 오직 “재정적 소모”만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경제적 혜택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게 유교는 비생산적이고 제사를 강조하면서 낭비만 일삼고 있는 종교일 뿐이다. 유교는 경제적 진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진보를 반대하는 퇴보적 시스템”이라고 비판하였다.¹¹⁾

조선사회의 경제적 후진성에 대한 선교사들의 비판은¹²⁾ 서구 자본주의의 풍요를 체험한 선교사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또한 그러한 비판은 산업혁명 이후 서구사회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정치,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제조업과 상업의 발전이 자유시장

10) Gale,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Chapter IV,” 202. 양반계층은 유교경전을 숭상하면서 사기장수와 같은 제조업자거나 상인 계층을 “경멸의 눈초리로” 내려다 보고 있다고 개일은 묘사한다. 그는 양반계층이 내일의 끼니도 해결 못하는 경제적 무능력자들이지만 유교경전을 보면서 고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11) Edwards Adams, “Present Day Economic Problems,” in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June 30-July 3, 1934*, ed. Harry A. Rhodes and Richard H. Baird (Seoul, Korea: Post Chapel, John D. Wells School, 1934), 194.

12) 19세기 말의 조선의 영국 영사관의 총영사였던 힐리어 W. C. Hillier는 조선이 가난하고,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조선의 성리학 지배층의 폭정과 “착취”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James Shepard Dennis, *Christian Missions and Social Progress: A Sociological Study of Foreign Missions*, Vol. 1, (Fleming H. Revell Company, 1897), 236.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적 경제체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그러한 자본주의 발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형성에 경제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고,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서구 근대 문명이 바로 자본주의의 높은 생산양식에 근거한다는 인식과 경험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비판의 뿌리에는 경제성장에서 문화적, 종교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막스 베버 Max Weber적 인식이 깊게 자리잡고 있었다.¹³⁾ 선교사 루카스 A. E. Lucas는 이러한 베버적 논제를 그의 글에서 분명히 한다. 서구사회에서 “종교적 진보와 산업의 진보는 원인과 결과라는 성격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왔다.” “복음의 생명력 있는 힘이” 선교지에서 영적인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산업과 기술을 자극한다.”¹⁴⁾ 즉 근대적 기독교적 가치가 근대의 경제체제를 이끌어가는데 원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개신교 선교사들은 조선사회에서 경제적 진보,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문화적 뿌리를 유교라고 보고 있었다. 근대적 진보를 이루는데 있어서 유교는 문화적, 종교적 저해요인 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와 문화는 새로운 시대의 규범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윤리는 그 새로운 근대윤리의 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유교비판에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의 종교적 가치와 규범이 유교를 대체 해야 한다는 선교적이고 문명적 관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13)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Talcott Parsons (London; Boston: Unwin Hyman, 1989). 문화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논쟁으로는 다음 책을 보라. Lawrence E. Harrison,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New York: Basic books, 2002).

14) A. E. Lucas, “The Gospel and Industrial Arts,” 20.

2. 선교사들의 경제윤리

일제가 조선을 강제로 합병하기 직전에 선교사 브로크만 Frank M. Brockman은 Korea Mission Field에 기고한 글에서 조선의 경제에 대한 선교사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조선은 중상주의적 국가도 제조업이 발전한 국가도 아니고 다만 농업국가, 그것도 근대적 경제체제를 가지지 못한 경제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조선이 개항 이후 자본주의적 경제를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그가 글을 발표한 1910년쯤에, “산업혁명”에 직면하고 있는 징후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산업혁명의 시대에 기독교 교육을 책임지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근대적 경제체제가 확산되는 시대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이 근대적 경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고, 근대적 경제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중요한 선교적 과제라고 강조한다.¹⁵⁾

자본주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과 그 생산량이 결정되는 경제체제이다. 그러므로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에 적응하는데 핵심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교사들은 기독교인들의 경제생활을 논의할 때, 좀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무엇이 생산되어야 하고 무엇이 유통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인다.¹⁶⁾

근대의 시장경제에서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경쟁의 원리이다. 선교사들도 이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루카스는 근대경제생활에서

15) Brockman, "Some of the Problems of Industrial Education in Korea," 172.

16) Clark, "First Impressions of Korea's Economic Conditions," 165.

“경쟁”은 재화를 “완벽”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말한다.¹⁷⁾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단체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하여 선교사들의 지원과 지도 아래 수공업품을 만들곤 하였다. 스와인하트 Lois Hawks Swinehart 선교사는 선교기관에서 한국 여성들이 만든 자수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 해외시장에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상품과 (예를 들어, 중국, 일본, 필리핀 등)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저렴하고 품질이 좋고, 상품성이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¹⁸⁾ 선교사들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비용을 절약하고, 어떻게 “시장성 있는 제품”¹⁹⁾을 만들어야 하는 지를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하였다.²⁰⁾

시장성 있는 상품,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노력은 농업부문에도 적용된다. 북장로교회 선교사 출신으로 해방 후 미군정 농림부 자문관을 지낸 선교사 럿츠 Dexter N. Lutz 는 식민 조선에서 농업이 주요 산업임을 목격한다. 그는 농업 부문이 근대화되어야 하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맞추도록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진취적인 농부들”을 통하여 농업 생산성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¹⁾

17) Lucas, “The Gospel and Industrial Arts”, 21

18) Lois Hawks Swinehart, “Industrial Work Among Women and Girls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14-1 (1918), 13. 다음 글도 참조하라. A. E. Lucas, “The Importance and Opportunities for Industrial Work in Mission Schools in Chosen,” *The Korea Mission Field*, 14-10 (1918), 205.

19) C. H. Deal, “Industrial Work of the Anglo-Korean School”, *The Korea Mission Field*, 9-12 (1913), 331.

20) C. H. Deal, “Self-help for Students in Mission Schools,” *The Korea Mission Field*, 10-0 (1914), 313-5; Frank M. Brockman, “A Trip through the Industrial Department of the Seoul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The Korea Mission Field*, 10-10 (1914) 316-317.

21) Dexter N. Lutz, “Pyongyang Industrial Center of the North,” *The Korea Mission*

경제생활에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자본주의 체제, 시장의 거래, 수요와 공급, 시장에서의 경쟁, 상품화 등을 당연하고 자연스런 경제법칙으로 받아들인다. 사회복음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데,²²⁾ 이러한 비판적인 관점은 소수의 입장이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한국 교인들이 자본주의적 경쟁 안에서 어떻게 값싸고 질 좋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서 경제적으로 개선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자본주의적 가치를 강조하고 근대적 경제윤리를 가르치면서 근대적 경제인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또한 이러한 접근을 자신들의 “책임감”으로 생각하고 “의무”로 받아들였다.

3. 선교사들의 자본주의적 삶

개신교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에게 경제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배양 시켰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그 자본주의 윤리를 체현하고 있었다. 해링턴 Fred Harvey Harrington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선교 초기에 지도급에 있는 여러 개신교 선교사들, 즉 알렌 Horace Allen, 빈튼 C. C. Vinton, 모ffet Samuel A. Moffett, 리 Graham Lee, 언더우드 Horace G. Underwood 등은 선교지 조선에서 상업 활동과 영리사업에 깊게 관여 하고 있었다.²³⁾ 해링턴은 그들을 “장사하는 선교사”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활

Field, 21-3 (1925) 66. 식민지 시대 선교적 관점에서 한국 농촌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보라. Brunner, “Rural Korea,” 84-172.

22) C. I. McLaren, “The Work of the Social Service Committee,” *The Korea Mission Field*, 21-5 (1925), 108-111; M. J. MacKinnon, “Social Evangelism,” *Korea Mission Year Book*, 1932, 115-118; *Annual Meeting of 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1923, 28-31; 1924, 32-4.

23) Fred Harvey Harring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Dr. Horace N. Allen and Korean-American Relations, 1884-1905* (Madison, Wi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44), 106. 일제시기 이전에 미국 선교사들의 경제적 관심과 상업

동을 이렇게 요약한다: “상업이라는 가닥이 개신교 복음전도라는 밧줄에 잘 짜여져 있다.”²⁴⁾ 그는 그가 쓴 책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mammon” mammon이라는 단어로 선교사들의 상업 활동과 그들의 사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경제활동을 mammon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배금주의나 이윤과 부에 대한 탐욕스러운 이익추구 같은 의미로만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선교사들의 이러한 영리사업 활동은 영미권 국가의 개신교가 갖는 시장 지향적이고 자본주의적 문화와의 깊은 친화성을 반영하고 있다.²⁵⁾ 영미권 국가 특히 미국에서는 개신교가 자본주의 문화와 깊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하였다. 미국형의 정교분리원칙, 즉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교회에 대한 국가 재정의 지원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근대적 정치체도가 특히 미국식 교파주의와 연결되면서 교회에서 시장지향적 행동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하였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영리사업에 대한 관여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은 자본주의에 필요한 경제윤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였고 선교지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연계된 경제윤리를 전파하였다.²⁶⁾

적 활동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 문헌을 보라.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1884-1910 : 선교사들의 중산층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210-63.

24) Harring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103. 다음의 글도 보라. A. Hamilton, *Korea* (New York: C. Scribner's Sons, 1904), 263.

25) 미국 개신교와 자유시장경제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다음 문헌을 보라: R. Laurence Moore, *Selling God: American Religion in the Marketplace of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26)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였던 Arthur Judson Brown은 선교사들의 경제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재건하는 경제적 힘” 이라고 묘사하였다. Arthur Judson Brown, *The Mastery of the Far East: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Japan's Rise to Supremacy in the Orient*. (New York: C. Scribner's Sons, 1919), 471.

III. 선교사들의 자조윤리

식민지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인 근대화가 확대 됨에 따라서, 자조 self-help라는 개념은 식민시대의 경제윤리의 핵심적 요소로 부상하였다. 자조라는 개념이 조선에 유입되는 데는 두가지 큰 경로가 있다. 하나는 일본어로 번역된 자조론에 대한 책을 한국어로 중역한 번역서를 통해서 이고, 또 하나는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한 자조윤리의 배양이다.

근대 서구적 맥락에서, 자조윤리는 기독교적 영감을 가지고 있는 근대 경제윤리이다. 이점을 가장 잘 예증하고 있는 책은 바로 스마일즈 Samuel Smiles가 1859년에 출판한 자조론 Self-Help 이다.²⁷⁾ 이 책은 기독교가치와 자본주의 경제 윤리를 연결하면서, 자조, 근면, 성실하게 일하기, 시간 엄수, 자립심, 등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책은 1871년 일본 기독교인 나가 무라 마사나오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되었다.²⁸⁾ 이 번역본은 메이지 일본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고, 일본사회가 근대적 자본주의 윤리를 받아들이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²⁹⁾ 이 책은 아제카미 켄조에 의해 다시 번역되었다. 이 일본어 번역본은 1910년대와 20년대 세 사람의 한국인에 의해서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최남선과 두 사람의 개신교인 홍난파³⁰⁾와 최연택이 그들이다.³¹⁾

27) Samuel Smiles, *Self-Help with Illustrations of Conduct and Perseverance* (London: John Murray, 1958). 스마일즈의 책은 현재도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 하나이다. 한국어 번역본도 여러 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번역본을 보라. 공병호 역, 『새뮤얼 스마일즈의 자조론』 (비즈니스북스, 2006).

28) Akiko Ohta, "Nakamura Masanao (Keiu), 1832-91: Translator into Japanese of Samuel Smiles' Self-Help," *Britain & Japan: Biographical Portraits*, ed. Hugh Cortazzi (London: Japan Library, 2002), 4:215-23.

29) 스마일즈의 책이 메이지 일본에 준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 책을 보라. Earl H. Kinmonth, *The Self-Made Man in Meiji Japanese Thought: From Samurai to Salary M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9-43.

30) 홍난파의 본명은 홍영후이다.

한국에서 자조라는 가치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최남선을 포함한 한국인들의 번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일제가 이 자조라는 담론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다.³²⁾ 이와 달리 본 논문은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도입된 자조라는 가치가 경제윤리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조선인과 일본 식민지 통치자들의 자조윤리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논의하는데 집중한다.³³⁾

스마일즈의 책이 일본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자조라는 개념이 식민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동시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도 자조라는 윤리는 한국인들에 확산되었다. 선교사들이 스마일즈의 자조윤리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조윤리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자조self-help라는 말로 경제생활의 기독교적 태도를 요약하면서, 기독교 경제윤리의 핵심으로 가르쳤다. 선교사 달이 C.

31) 최남선의 책은『자조론(自助論)』으로 1918년에 출판되었고, 홍난파의 번역은 『청년입지편: 일명 자조론(青年立志編: 一名 自助論)』이라는 제목으로 1923년 출판되고, 최연택은 1924년 출판된 『세계일류사상가논문집(世界一流思想家論文集)』에 “자조론(自助論)” 일부를 수록하였다.

32) 일제시대 자조론의 번역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김남이, “1910년대 최남선의 ‘자조론’ 번역과 그 함의,” 민족문화사연구 43 (2010): 244-272; 최희정, “1910년대 최남선의 [자조론] 번역과 ‘청년’의 ‘자조,’” 한국사상사학 39 (2011): 213-250; 소영현, “근대 인쇄 매체와 수양론·교양론·입신출세주의,” 상허학보18 (2006): 195-227; 최희정, “홍난파 가문의 기독교 수용과 ‘青年’홍난파,” 서강인문논총 29 (2010): 69-106; 최희정, “1920년대 이후 성공주의 기원과 확산: 기독교 최연택의 자조론 수용과 성공론,” 한국근현대사연구 76 (2016): 187-216; 류시현, 『최남선 연구-제국의 근대와 식민지의 문화』(역사비평사, 2009), 86-108.

33) 최희정은 자조라는 개념을 분석하면서, 자조를 “상향적 사회이동” “입신출세” “입신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자조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윤리라는 경제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최희정의 논문은 이러한 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류시현의 글에서는 자조론을 자본주의적 가치의 도입과 연결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부족하다.

H. Deal 잘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자조는 “자립적이고, 자기확신을 가지며, 자기를 존중하고, 독립적”임을 의미한다.³⁴⁾ 선교사들은 초기에 미션 스쿨 운영비용 등 선교지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점차 선교지에서 필요한 비용을 학생 스스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조를 한다. 그러므로 선교사 니콜라스 Lillian E. Nichols는 그의 글 “자조부의 가치”라는 글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자신을 스스로 돕”도록 훈련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 방법론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자조의 선교 원칙은 학생들이 “자립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분명히 한다.³⁵⁾ 선교사들은 이러한 자립의 정신을 “일반적인 선교 정책 또는 방법”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³⁶⁾

이러한 자조윤리는 1910년대부터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가르쳐 지기 시작했다.³⁷⁾ 자조의 윤리를 제도화하기위하여 선교사들은 미션 학교에 자조부 “self-help department”를 세웠다.³⁸⁾ 이것은 영어로는 여러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Self-Help Department,” “Industrial Department,” “Industrial Self-Help Department,” “Industrial School,” “A Self-Supporting Industrial Department.”³⁹⁾ 선교사들이 사용

34) Deal, “Self-Help for Students in Mission Schools,” 314.

35) Lillian E. Nichols, “The Value of the Self-Help Department,” *The Korea Mission Field*, 14-10 (1918), 216.

36) Charles E. Sharp, “A Self-Supporting Common School,” *The Korea Mission Field*, 10-10 (1914), 309.

37) Lillian E. Nichols, “The Value of the Self-Help Department,” 216.

38) 딜 C. H. Deal 선교사는 기독교 계통학교들의 “실업교육” industrial education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학교가 일반적인 의미의 실업훈련 이라기 보다는 “자조부” self-help department 의 형태로 운영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Deal, “Industrial Work of the Anglo-Korean School,” 329.

39) C. H. Deal, “A Self-Supporting Industrial Department,” *The Korea Mission Field*, 14-10 (1918), 223; G. S. McCune, “Industrial Education and Self-Help Departments,” *The Christian Movement In The Japanese Empire*, 1918, 384-89. 다음의 글도 보라. *Annual Meeting of 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하는 영어 표현은 한글로는 일반적으로 실업부로 번역되었다. 이름은 다양 하였지만, 이러한 실업학교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자본주의 윤리는 자조윤리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부서들은 자본주의적 가치를 배양하고 내면화하고 훈련하는데 방향이 맞추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평안북도 선천에 선교사가 세운 신성학교에⁴⁰⁾는 자조부 Self-Help Department 부서 아래 여러 작은 부서를 두고 있었다: 목공예, 금속 작업, 유제품, 양조장, 농장경영, 원예, 과수원, 육가공, 양잠업, 통조림 만들기, 이발소, 사탕과 당밀제조.⁴¹⁾ 이 자조부에서 선교사들은 여러 산업부문에서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

자조윤리는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립적이고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가르치면서, 그 내면에 있어서 “인격형성”을 강조하였다.⁴²⁾ 그러나 이러한 내면적인 인격의 함양이나 인성의 개발은 좀더 구체적인 접근에 의해서 경제적인 내용으로 구체화 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조윤리는 육체노동의 고귀함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경제문제를 언급하는 선교사들 중 많은 이들은 한국인들이 육체노동을 천시하면서, 노동의 고귀함이라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한다.⁴³⁾ 신성학

Missions in Korea, 1919, 34.

40) 선교사들은 이 학교를 휴 오닐 주니어 아카데미(The Hugh O'Neil Jr. Academy for Boys)라고 불렀다.

41) McCune “Industrial Education and Self-Help Departments,” 388. YMCA에서 1910년대 행해진 경제생활에 대한 훈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의 존엄성,” “돈과 시간의 가치,” “근대 비즈니스 세계 방법론,” “성공적인 비즈니스맨들의 삶에 대한 강의” “부기, 상업, 근대상업영어, 주식 세공일, 가구 만들기, 목수, 배관작업.” 선교사 브록크만 Frank M. Brockman은 이러한 강의가 YMCA 소속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 Brockman, “Some of the Problems of Industrial Education in Korea,” 173.

42) McCune, “Industrial Education and Self-Help Departments,” 387; 다음 글도 보라. E. Nichols, “The Value of the Self-Help Department,” 216.

교의 교장이었던 맥쿰Geo. S. McCune 선교사는 “머리”와 “가슴”을 훈련하는 지식이나 도덕훈련도 중요하지만 “손”을 사용하는 노동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머리와 가슴과 함께 손을 통하여 노동하는 인간이 바로 “전인적 인간”이 된다. 인문교육이나 영어같은 언어 교육만큼 직업훈련, 산업훈련을 통해 자기 삶을 책임지는 경제윤리를 배양해야 한다고 그는 역설한다. 이러한 육체적 노동훈련을 통하여 자조의 정신을 배우게 된다.⁴⁴⁾ 자조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교육을 통하여 선교사들은 손으로 하는 “노동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이러한 노력은 조선인들을 좀더 “근면”하게 하는 훈련을 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⁴⁵⁾ 이러한 훈육을 통하여 조선인들이 점점 더 산업화, 자본주의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더 근면해지고 경제적으로 책임 있는 노동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⁴⁶⁾

선교사들은 ‘시간이 돈’이라고 표현되는 근대적이고 자본주의적 시간

43) 예를 들어 다음 글을 보라. Arthur C. Bunce, “A Few First Impressions of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25-8 (1929), 168-9; Grierson, “Korean Industrial Characteristics,” 6. 육체노동을 멸시하는 조선인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은 선교초기부터 발견된다. 선교사 빈튼 C. C. Vinton은 1894년에 발표한 글에서 조선에서 선교에 장애물이 되는 여러가지 원인 중 하나로 자립적인 교회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그런데 이것은 양반들 사이에 퍼져있는 육체 노동을 경시하는 태도와 연관이 있다고 빈튼 선교사는 진단한다. C. C. Vinton, “Obstacles to Missionary Success in Korea,”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7.11 (1894), 842-3.

44) Geo. S. McCune, “Hand Training Necessary as Well as That of Head and Heart,” *The Korea Mission Field*, 14-1, (1918), 8.

45) McCune “Industrial Education and Self-Help Departments,” 384, 389.

46) 다음 글을 보라. Earnest Fisher, “Missions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24-10 (1928), 199-205; Nichols, “The Value of the Self-help Department,” 216; 윤치호는 중등학교수준의 기독교 교육기관에서는 육체노동에 대한 훈련이나 실업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 산업에 대한 훈련이나 농업에 대한 훈련이 없는 근대 교육은 “이익보다 해악이 더 많다”고 그는 강조한다. T. Y. Yun, “A Plea for Industrial Training,” *The Korea Mission Field*, 7-7 (1911), 185, 188.

개념을 가르치면서, 게으름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점을 부각한다. 선교사 아담스 Edwards Adams는 이것을 “시간의 가치와 나태함의 죄”라는 표현으로 요약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부지런함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태함을 벗어 던지고 시간을 절약하여 근면한 삶을 살아가면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경제윤리의 책임 있는 주체로 기독교인이 살아가도록 “기독교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선교사들의 “의무”라고 그는 표현한다.⁴⁷⁾

노동의 존귀함이나 근면 그리고 시간의 중요성 뿐 아니라 여러 자본주의적 가치들을 선교사들은 강조한다. 여기에는 “정확성과 효율성,”⁴⁸⁾ “돈의 가치,”⁴⁹⁾ “보험과 저축의 가치”⁵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가치는 근대의 경제인의 가져야할 핵심적인 덕목이었다.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조선인들은 이러한 근대 자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런 가치의 훈련을 통하여 근대 경제적 삶에서 자기를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경제인을 양성하는 것은 기독교 선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인식아래 선교사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또 선교기관에서 훈련 받는 학생들에게 자본주의 사회에 요구되는 산업훈련, 직업훈련, 실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⁵¹⁾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많은

47) Adams, “Present Day Economic Problems,” 198. 윤치호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그는 교인들에게 이러한 자본주의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한달에 한주일은 설교가 경제윤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그는 제안한다. 교회 강단에서 “근면, 절약, 저축의 덕성”을 강조하고 “게으름, 사치, 낭비의 죄”에 대한 내용이 설교 되기를 기대하였다. Yun Chi Ho, “What Shall We Eat?,” *The Korea Mission Field*, 14-1 (1918), 12.

48) Deal, “A Self-Supporting Industrial Department,” 223. 다음의 글도 보라. E. W. Koons, “The Need of Lay Leadership,” *Annual Meeting of 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1937, 43.

49) Brockman, “Some of the Problems of Industrial Education in Korea,” 173.

50) Adams, “Present Day Economic Problems,” 198.

51) Lucas, “The Importance and Opportunities for Industrial Work in Mission Schools

선교사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신교인들이 성공하여 “기독교 자본”을 가지고 튼튼하고 영속적인 기업을 세우기를 소망하였다.⁵²⁾

선교사들이 강조한 자조윤리는 세가지 차원을 가진다. 첫째로, 자조윤리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운 기술을 통하여 학비와 생활비를 벌게 도움으로써 자기 삶에 경제적으로 책임 있고, 독립적이 되도록 도움을 준다. 선교사 레이놀즈 J. B. Reynolds가 잘 표현한 것처럼, 실업교육에서 이상적인 태도는 “돈을 벌면서 배우는 것이다.”⁵³⁾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교회적 차원을 갖는다. 이것이 자조윤리의 두번째 차원이다. 자조윤리는 네비우스 선교 방법론의 경제적 자립 (self-supporting) 원칙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⁵⁴⁾ 네비우스 선교원칙은 교회와 선교사에 세워진 기관들이 한국인들에 의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교인들이 선교사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독립적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원칙이다. 여기서 자조는 이 자립원칙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⁵⁵⁾ 자조윤리는 개인적인 차원과 교회적인 차원을 가질 뿐 아니라 좀더

in Chosen,” 205. 선교사 브로크만 Frank M. Brockman은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실업교육에 많은 학생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지만, 또한 적지 않은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을 부정적으로 보았다고 지적한다. 근대적인 인문교육을 원했던 그들은 이러한 실업교육이 교육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보았다. 브로크만은 이러한 태도를 “잘못된 자존심”이라고 언급하면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질타한다. Brockman, “Some of the Problems of Industrial Education in Korea,” 173.

52) Deal, “A Self-Supporting Industrial Department,” 223.

53) J. B. Reynolds, “Industrial Education as a Part of the Missionary Program,” *The Korea Mission Field*, 22-10 (1926), 214.

54) 네비우스 선교방법론은 자립, 자전, 자치 (Self-supporting, Self-propagating, and Self-governing)의 삼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방법론을 의미한다. 네비우스 선교 방법론에 대하여는 다음 글을 보라 Roland Allen, “The ‘Nevius Method’ in Korea,” *The “Nevius Method” in Korea*, edited by Thomas Cochrane (London: World Dominion Press, 1930); Charles Allen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2nd ed.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37).

55) 네비우스 선교방법론 관점에서 교인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 글을 보라.

근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차원을 가진다. 선교사들은 자조윤리에 근거한 자본주의적 문화와 정신을 한국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혁명적으로 변화될 때까지”⁵⁶⁾ 훈련시켜서 하고, 이를 통해 피선교지의 한국인들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인”⁵⁷⁾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자조윤리의 확산을 통하여 자본주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자본주의 근대성을 개인들에게 내면화시키고, 자본주의적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많은 선교사들이 자조에 근거한 경제윤리를 역설하고 훈련시켰지만, 어떤 선교사들은 그 윤리가 갖는 위험성도 지적하였다. 선교기관에서 경제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적 경제생활에 적응을 강조하다 보면 한국인들이 결국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빠질 수 있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선교사 스와인하트 Lois Hawks Swinehart는 실업교육을 통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들의 교육이 미래에 “상업주의”의 빠른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러므로 그녀는 학비와 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 한에서만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⁵⁸⁾ 딜 C. H. Deal 선교사는 자조의 정신은 학교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조윤리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는다. 그는 자조 원칙은 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그 “첫 열매”라고 보고 있다. 실업교육, 직업교육을 시행할 때, “삶에 대한 더 넓은 관점과 높은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러한 높은 이상 가운데 실업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222-6. 윤치호의 다음 글도 참조하라. Yun, “A Plea for Industrial Training”, 185-6.

56) Deal, “A Self-Supporting Industrial Department,” 223

57) Sharp, “A Self-Supporting Common School,” 310.

58) Swinehart, “Industrial Work Among Women and Girls in Korea,” 12.

교육을 받아야 진정한 기독교적인 실업교육이 된다고 보고 있다.⁵⁹⁾ 이처럼 선교사들 중 일부는 자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훈련이 가져올 수 있는 상업주의적 세속적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자본주의적 경제윤리를 근대적이고 기독교적 가치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러한 가치를 한국인들에게 훈육할 “의무”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IV. 일제의 자조윤리로서의 “자력갱생”과 선교사들

1. 일제의 자조윤리로서의 “자력갱생”

식민조선에서 자본주의적인 근대 경제체제가 확산됨에 따라 조선 총독 부도 실업교육을 강조하였다.⁶⁰⁾ 실업교육을 통하여 일제는 조선인들을 새로운 경제 체제에 필요한 노동자로 훈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제의 실업교육은 고급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아니라 낮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실용교육, 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교육은 본질적으로 제국의 신민으로서 조선인들을 낮은 수준의 기술 교육에 국한 시킴으로써 조선에서의 식민 통치를 영속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⁶¹⁾ 이를 통해 식민지 경제를 일본 본토 경제에 완전히 종속 시키려고 하였다.

59) Deal, “Industrial Work of the Anglo-Korean School,” 329-30.

60) 일제시대의 실업교육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라. 안홍선, “식민지시기 중등 실업교육의 성격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2 (2015): 145-174; 홍덕창, 1996, “일제시대의 실업교육에 관한 연구,” 충신대논총, 1996, 1-46; 김서은, 김순전, “보통학교 국어 교본을 통해 본 시기별 실업교육 양상,” 일어일문학 53, 2012.2: 331-349; 이원호, 『실업교육』(도서출판 하우, 1996).

61) 이 점은 기독교 교육운동가인 이만규가 잘 지적하고 있다. 일제는 조선인들의 실업교육을 강화하면서 조선인들에게 인문교육이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려고 온갖 정책적 노력을 다하였다. 고등교육이나 인문교육은 식민지를 경영해야 하는 일본인들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만규, 『조선교육사』(서울: 을유문화사, 1949) 2: 173-9, 426-9.

선교사들과 최남선을 비롯한 조선인들이 강조한 자조윤리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자들에 의해서도 강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윤리는 식민지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⁶²⁾ 1930년대에, 총독부는 자조윤리를 그 당시 직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강조하고 있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 된 1929년의 경제공황은 미국뿐 아니라 일제에게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주었다. 또한 1931년에 발생한 만주사변은 대공황에 의해 초래된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만주와 맞닿아 있었던 조선이 경제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받은 것은 아주 당연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은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자조윤리를 널리 선전하였다. 조선이 당면한 경제 위기는 절약과 근면 그리고 자조의 정신의 배양을 통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기획된 사회경제 운동이 바로 농촌진흥운동이다.⁶³⁾ 농촌진흥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 되는 덕성이 바로 “자력갱생”이다. “자력갱생”은 자조의 다른 이름이었다. 자력갱생운동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의 증대라는 점보다는 정신적 변화, 도덕적 각성을 강조하였다.⁶⁴⁾ 이 경제정책은 식민지 조선 경제의

62) 최희정, “1930년대 ‘자력갱생’론의 연원과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화,” 한국근현대사연구 63 (2012), 152-6.

63) 농촌진흥운동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하라. 지수걸, “일제의 군국주의 파시즘과 ‘조선농촌진흥운동,’” 『역사비평』 제47호 (1999), 16-36; 이윤갑,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의 시국인식과 농촌진흥운동의 변화,” 『대구사학』 제87집 (2007), 33-80; 김영희, “농촌진흥운동을 통한 일제의 농촌통제와 농민의 반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0집 (2002), 297-342; Kazushige Ugaki, *The Bright Future for Chosen* (Keijo, Chosen: Foreign Affairs Section, 1934).

64) 매일신보는 농촌진흥운동을 독려하는 우가키 총독이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자조윤리를 정신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조에 대한 이해는 스마일즈의 자조윤리와는 너무나 다르다. 스마일즈는 개인의 자세의 변화로 물질적인 성공을 이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질적 타산보다도 정신분발을 기조로,” 매일신보, 1933년 4월 6일자, 6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 종사자들의 정신적 각성, 도덕적 개혁을 촉구하면서, 조선의 농업종사자들이 자조의 정신으로 무장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독려했다. 총독부의 이러한 정책적 결정때문에 자조운동은 식민조선에 광범위하게 침투하였다.

2. 선교사와 일제 식민주의자들의 자조윤리

자조원칙이 식민지 경제윤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개신교 선교사들은 총독부가 주도한 농촌 자조운동을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⁶⁵⁾ 더 나아가, 그들은 이 농촌진흥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조선 기독교인들을 격려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총독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한 두 발짝 더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였다.⁶⁶⁾ 조선 기독교인들이 총독부 방침에 따라 자조윤리를 내면화하고 체화 하는 가운데 “자력갱생” 농촌운동의 충실한 실천가가 되기를 강하게 권고하였고, 비기독교인의 모범이 되기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호의적인 태도에 대하여, 조선총독부를 대표해 선교사들의 연합공의회⁶⁷⁾ 연례회의에 참석한 총독부 고위관리는 선교사들이 총독부가 주도한 농촌진흥운동에 열렬히 협력함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⁶⁸⁾

65) Adams, “Present Day Economic Problems,” 197.

66) “Rural Life Committee Report,” *Annual Meeting of 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1935, 31.

67) 이 연합공의회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연합조직인 재조선개신교복음선교공의회 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를 말한다.

68) “Address of Mr. Imaida, Vice Governor General of Chosen,” *Annual Meeting of 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1934, 40. 1933년도 선교사연합공의회에 방문한 총독부 고위인사는 자조의 정신이 조선 지역 곳곳으로 퍼져 가고있다고 말하면서 자조윤리의 전국적인 확산에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Address of Mr. Watanabe of Educational Department of the Government-General,” *Annual Meeting of 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1933, 38.

1930년대에, 자조윤리는 식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윤리가 된다. 이것은 경제영역에서 식민지 도덕질서를 구성한다. 식민조선에서 자조윤리는 근대경제 윤리 일뿐 아니라 또한 식민지 경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윤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려되고 촉진되었다. 총독부에 의해 확산된 자조윤리는 조선인들의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은 자조윤리를 배양하지 못한 조선인들 자신의 책임이지 식민 정부, 즉 조선총독부의 책임은 아니라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일제의 한 관료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만, 스스로 돕는 노력을 그다지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어찌 할 수가 없다”⁶⁹⁾고 언급하면서, 개인이 당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책임이 개인 그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뿐 아니라 자조윤리는 대공황을 통하여 명백하게 밝혀진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근본 위기를 은폐하는데 이용되었다. 구조적 원인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졌지만, 개인의 책임원칙과 정신적 각성을 중심으로 하는 자력갱생이라는 자조의 원칙이 선전되고 장려되었다.

일제의 식민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자조윤리는 국가주의적 윤리이면서 동시에 식민윤리라는 차원을 갖는다. 이에 비해서 선교사들의 자조윤리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선교사들의 윤리가 서구적 자조윤리가 갖는 개인주의적 특징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조윤리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특징은 식민지적 질서 속에서 식민윤리로 변용된다. 정치적 자유없이 종교적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근대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는 것처럼, 식민이라는 억압된 질서 속에서 경제윤리로서의 자조윤리는 1930년대의 자력갱생운동이

69) 教育資料編纂會, 『農村精神講話』(第一出版協會, 1934), 96. 최희정, “1930년대 ‘자력갱생’론의 연원과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화,” 151에서 재인용.

보여주는 것처럼 식민지 덕성으로 관제화 될 운명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 도덕 질서의 한 부분으로서의 자조 윤리는 일제의 황국 신민인 조선인에게 자기의 살림살이와 생계는 자기가 책임져야하고,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은 자신들 게으름의 책임이지 식민 정부의 책임이 아니며, 개인들의 자기이익은 식민정부가 규정한 일제의 전체이익에 복종해야 한다는 식민지 전체주의를 강화하는데 사용되었다.

V. 나가는 말: 자본주의 근대성과 기독교 근대성

자조윤리는 자본주의 근대성의 한 특징이다. 이것은 근대자본주의의 도덕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자조윤리는 조선인들에게 근본적으로 새로운 개념이고 새로운 윤리였다. 왜냐하면 근대 이전 농업이 경제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사회에서 자기책임원칙에 근거한 자조윤리는 중심 경제윤리가 아니었다. 그 사회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고 그러한 사회에서 공동체적 책임과 공동체에 근거한 윤리가 강조되었다. 두레, 계, 품앗이 등과 같은 공동체적 경제윤리가 좀더 중심적 덕성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경제가 근대화 되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확산됨에 따라, 조선인들은 자조 윤리를 중심적인 경제 윤리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선교사들과 식민지배자들의 자조윤리에 대한 강조는 이러한 흐름을 강화시키고 가속화시켰다.

선교사들의 경제윤리를 자조윤리로만 환원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제시대에 선교사들은 자본주의의 물질주의적 위험성을 비판하면서 자조윤리와 함께 사회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선의 윤리도 강조하였다.⁷⁰⁾ 그들은

70) 일제시대에 발생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교사들과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음 문헌을 보라. Laura Edwards, "Seoul Social Evangelistic Center," *The Korea Mission Field*, 20-8 (1924), 160-1; E. T. Rosenberger, "Social Service,"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부분적으로는 미국 자본주의가 갖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경험때문에 또 부분적으로 러시아 혁명 이후 한반도에 확산되는 공산주의 운동 때문에 경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경제를 바라보는 방식은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가치를 지지하고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밀러 E. H. Miller 선교사는 일제시대에 선교사가 정당화한 근대 경제질서를 “자본주의적 사회 질서”⁷¹⁾ 라고 표현한다. 일제시대의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은,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든 밖에서의 활동이든, 복음전파의 형식이든 근대교육의 형식이든, 그들의 선교활동의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사회 질서”에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자조의 정신이다.

개항 이후 한국사회가 근대적인 규범과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영역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경제적인 면에서 근대화는 자본주의적 가치와 제도의 도입과 확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경제를 바라보는 방식의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 졌는데, 이것을 우리는 자본주의 근대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본주의 근대성은 일제의 한국 병합 이후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경제가 식민화 되고 종속화 됨에 따라서 식민성과 깊게 연계되면서 전개되어 왔다. 식민지 시대에 일제에 의해 주도된 근대를 식민지 근대라고 부른다.⁷²⁾ 식민지 근대의 중요한 부분이 일제에 의해 주도된 경제적 차원의 근대적 변화이다. 그러나

and Formosa, 1925, 637-42.

- 71) E. H. Miller, “General Survey of the Christian Movement,” *The Korea Missions Yearbook*, 1932, 7.
- 72) 식민지 근대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 문헌을 보라. Gi-Wook Shin and Michael Edson Robinson, eds. *Colonial Modernity in Kore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9); 윤해동, 『식민지 의 회색 시대: 한국의 근대성 과 식민주의 비판』 (역사비평사, 2003).

일제시대의 근대를 식민지 근대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해 확산된 근대도 한국 사회의 근대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근대이다.⁷³⁾ 기독교 근대성의 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경제적 근대화에 대한 기독교의 역할이다. 즉 자본주의적 근대성은 기독교근대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자조윤리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윤리를 통하여 근대적 경제적 규범과 가치를 확산시켰다. 이를 통하여 그들은 자본주의적 노동윤리, 직업윤리를 저변화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일제시대는 식민성과 근대성이 교차되는 시기이다. 경제윤리로서의 자조윤리는 이러한 교차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30년대에 자조윤리는 관제화 되어 식민 통치 이데올로기의 일부분이 되었다. 자조윤리는 일제에 의해 식민지 덕성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식민 전체주의가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식민지 도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조윤리는 식민지 한국이 서서히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감에 따라 자본주의적 윤리를 확산시켰고, 근대적 경제체제 속에 필요한 근대적 경제규범을 제시하여 왔다. 또한 자조윤리는 근대적 시장 경쟁체제에서 적응하여, 살아남고, 성공하는 인간의 행동규범을 제시하였다. 1930년대의 “자력갱생”은 바로 20세기 초부터 한국사회에 도입되고 확산되어온 자조 경제윤리라는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식민 경제 정책이다. 식민정부의 통치전략으로 자조윤리가 기능할 수 있었던 문화적 토대는 20세기 초 이래로 확산되어온 자조윤리에 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이러한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73) 기독교 근대성에 대하여는 다음 논문을 보라. Byongsung Lee, *Christianity and Modernity in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Japanese Colonialism, and the Formation of Modern Korea*, PhD Diss., (McGill University, 2017).

참고문헌

- 강만길. 『한국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 김낙년 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김남이. “1910년대 최남선의 ‘자조론’ 번역과 그 함의.” 『민족문화사연구』제 43집 (2010). 244-272.
- 김서은, 김순전. “보통학교 국어 교본을 통해 본 시기별 실업교육 양상.” 『일어일문학』제 53집 (2012). 331-349.
- 김영희. “농촌진흥운동을 통한 일제의 농촌통제와 농민의 반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 30집 (2002). 297-342.
- 김인호.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2000.
-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1884-1910 : 선교사들의 중산층적 성격증중심으로』.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류시현. 『최남선 연구—제국의 근대와 식민지의 문화』. 역사비평사, 2009.
- 소영현. “근대 인쇄 매체와 수양론·교양론·입신출세주의.” 『상허학보』 제18집 (2006). 195-227.
- 안병직 편. 『한국경제성장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안홍선. “식민지시기 중등 실업교육의 성격 연구.” 『아시아교육연구』제 16권2호 (2015). 145-174.
- 윤해동. 『식민지 의 회색 시대: 한국의 근대성 과 식민주의 비판』. 역사비평사, 2003.
- 이도흙. “근대성 논의에서 패러다임과 방법론의 혁신 문제.” 『국어국문학』제 153집 (2009). 253-285.
- 이만규. 『조선교육사』. 서울: 을유문화사, 1949.
- 이원호. 『실업교육』. 도서출판 하우, 1996.
- 이윤갑. “우가키 가즈시게 (宇垣一成) 총독의 시국인식과 농촌진흥운동의 변화.” 『대구사학』제 87집 (2007). 33-80.
- 이윤미. “식민지근대화론 논의의 성격과 그에 대한 교육적 이해 및 비판.” 『한국교육사학』제25권 1호 (2003). 129-153.
- 정연태. “주체서평-식민지근대화론의 새로운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비

- 평』제58호 (2002). 385-398.
- 조석근. “민족경제론의 식민지시대 역사인식 재조명.” 『동향과 전망』 제72호 (2008). 113-145.
- 지수걸. “일제의 군국주의 파시즘과 ‘조선농촌진흥운동.’” 『역사비평』 제47호 (1991). 16-36.
- 최희정. “1920년대 이후 성공주의 기원과 확산: 기독교 최연택의 자조론 수용과 성공론.” 『한국근현대사연구』제76집 (2016). 187-216.
- _____. “1930년대 ‘자력갱생’론의 연원과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화.” 『한국근현대사연구』제63집 (2012). 139-177.
- _____. “1910년대 최남선의 [자조론] 번역과 ‘청년’의 ‘자조.’” 『한국사상사학』 제39집 (2011). 213-250.
- _____. “홍난파 가문의 기독교 수용과 ‘青年’홍난파.” 『서강인문논총』 제29집 (2010). 69-106.
- 홍덕창. 1996, “일제시대의 실업교육에 관한 연구.” 『총신대논총』 제15집 (1996). 1-46.

Adams, Edwards “Present Day Economic Problems,”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June 30-July 3, 1934*, ed. Harry A. Rhodes and Richard H. Baird. Seoul, Korea: Post Chapel, John D. Wells School, 1934.

Allen, Roland. “The ‘Nevius Method’ in Korea,” *The “Nevius Method” in Korea*, edited by Thomas Cochrane. London: World Dominion Press, 1930.

Annual Meeting of 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Brockman, Frank M. “A Trip through the Industrial Department of the Seoul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The Korea Mission Field*, 10-10 (1914) 316-317.

_____. “Some of the Problems of Industrial Education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6-7 (1910), 175.

Brown, Arthur Judson. *The Mastery of the Far East: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Japan’s Rise to Supremacy in the Orient*. New York:

- C. Scribner's Sons, 1919.
- Brunner, Edmund. "Rural Korea: A Preliminary Survey of Economic, Social, and Religious Conditions," *The Jerusalem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March 24-April 8, 1928: Volume 6. The Christian Mission in Relation to Rural Problems*, ed.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London: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1928.
- Bunce, Arthur C. "A Few First Impressions of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25-8 (1929), 168-9
- Carter, T. J. "Industrial Korea,"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1921, 413-6.
- Chang, Chan Sup. "The Confucian Capitalism: Impact of Culture and the Management System on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15, no. 2 (1998): 53.
- Clark, Charles Allen.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2nd ed.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37.
- Clark, F. O. "First Impressions of Korea's Economic Conditions," *The Korea Mission Field*, 25-8 (1929), 166.
- Deal, C. H. "Industrial Work of the Anglo-Korean School," *The Korea Mission Field*, 9-12 (1913), 331.
- _____. "A Self-Supporting Industrial Department." *The Korea Mission Field*, 14-10 (1918), 223.
- _____. "Self-help for Students in Mission Schools," *The Korea Mission Field*, 10-0 (1914), 313-5.
- Dennis, James Shepard. *Christian Missions And Social Progress: A Sociological Study Of Foreign Missions*. Vol. 1. Fleming H. Revell Company, 1897.
- Eckert, Carter J. *Offspring of Empire: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 Edwards, Laura. "Seoul Social Evangelistic Center," *The Korea Mission Field*, 20-8 (1924), 160-1;
- Fisher, Earnest. "Missions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The*

- Korea Mission Field*, 24-10 (1928), 199-205.
- Gale, J. S.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Chapter IV," *The Korea Mission Field*, 20-10 (1924), 202.
- Grierson, Robert. "Korean Industrial Characteristics," *The Korea Mission Field*, 14-8 (1918), 5-7.
- Hamilton, A. *Korea*. New York: C. Scribner's Sons, 1904.
- Harrington, Fred Harvey. *God, Mammon, and the Japanese: Dr. Horace N. Allen and Korean-American Relations, 1884-1905*. Madison, Wi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44.
- Harrison, Lawrence E.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New York: Basic books, 2002.
- Kinmonth, Earl H. *The Self-Made Man in Meiji Japanese Thought: From Samurai to Salary M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 Lee, Byongsung. *Christianity and Modernity in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Japanese Colonialism, and the Formation of Modern Korea*, PhD Diss., McGill University, 2017.
- Lew, Seok-Choon, Woo-Young Choi, and Hye Suk Wang, "Confucian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in Korea: The Significance of Filial Piety,"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1, no. 2 (2011): 171-96.
- Lucas, A. E. "The Gospel and Industrial Arts," *The Korea Mission Field*, 14-1 (1918), 20.
- _____. "The Importance and Opportunities for Industrial Work in Mission Schools in Chosen." *The Korea Mission Field*, 14-10 (1918), 205.
- Lutz, Dexter N. "Pyongyang Industrial Center of the North," *The Korea Mission Field*, 21-3 (1925) 66.
- MacKinnon, M. J. "Social Evangelism," *Korea Missions Year Book*, 1932, 115-118.
- McCune, G. S. "Industrial Education and Self-Help Departments," *The Christian Movement In The Japanese Empire*, 1918, 384-89.
- McCune, Geo. S. "Hand Training Necessary as Well as That of Head and Heart," *The Korea Mission Field*, 14-1, (1918), 8.

- McLaren, C. I. "The Work of the Social Service Committee," *The Korea Mission Field*, 21-5 (1925), 108-111.
- Miller, E. H. "General Survey of the Christian Movement," *The Korea Missions Yearbook*, 1932, 7.
- Moore, R. Laurence. *Selling God: American Religion in the Marketplace of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Nichols, Lillian E. "The Value of the Self-Help Department," *The Korea Mission Field*, 14-10 (1918), 216.
- Ohta, Akiko. "Nakamura Masanao (Keiu), 1832-91: Translator into Japanese of Samuel Smiles' Self-Help." *Britain & Japan: Biographical Portraits*, ed. Hugh Cortazzi (London: Japan Library, 2002), 4:215-23.
- Reynolds, J. B. "Industrial Education As a Part of the Missionary Program," *The Korea Mission Field*, 22-10 (1926), 214.
- Rosenberger, E. T. "Social Service"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1925, 637-42.
- Sharp, Charles E. "A Self-Supporting Common School," *The Korea Mission Field*, 10-10 (1914), 309.
- Shin, Gi-Wook, and Michael Edson Robinson, eds. *Colonial Modernity in Kore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9.
- Smiles, Samuel. *Self-Help with Illustrations of Conduct and Perseverance*. London: John Murray, 1958.
- Swinehart, Lois Hawks. "Industrial Work Among Women and Girls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14-1 (1918), 13.
- Taylor, Charles. *A Secular Age*.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Tu, Wei-ming, ed.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Moral Education and Economic Culture in Japan and the Four Mini-Dragon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 Ugaki, Kazushige. *The Bright Future for Chosen*. Keijo, Chosen: Foreign Affairs Section, 1934.
- Vinton, C. C. "Obstacles to Missionary Success in Korea."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7.11 (1894), 842-3.

- Weber, Max.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Talcott Parsons. London; Boston: Unwin Hyman, 1989.
- Weber, Max. *The Religion of China: Confucianism and Taoism*, trans. Hans H. Gerth. New York: Free Press, 1951.
- Yun, Chi Ho, "What Shall We Eat?," *The Korea Mission Field*, 14-1 (1918), 12.
- Yun, T. Y. "A Plea for Industrial Training," *The Korea Mission Field*, 7-7 (1911), 185, 188.

논문투고일: 2019년 6월 29일

심사개시일: 2019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12일

• 국 문 초 록 •

이 논문은 일제 시대 개신교 선교사들이 보여준 자본주의 가치관을 검토하고, 그들이 한국인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한 경제윤리를 분석한다. 일제시대에 조선의 식민경제는 일제에 종속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날로 확대되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이 근대적 경제체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훈련시키는 것이 선교적 차원에서 그들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경제윤리에 핵심적 가치는 자조이다. 선교사들은 자조윤리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윤리를 통하여 근대적 경제적 규범과 가치를 확산시켰고, 자본주의적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선교사들의 자조윤리는 일제가 1930년대에 강조한 “자력갱생”이라고 표현된 식민지 자조윤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의미를 분석한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자조윤리를 통하여 한국에서 자본주의 근대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 근대성의 한 특징이다.

주제어: 선교사, 자조, 경제윤리, 자본주의, 기독교, 근대성
